

स्थ्य,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 질병과 멀어질 수 있어요



피부 트러블에는 슷이 함유된 비누를

피부 트러블은 피지와 각질, 먼지, 땀 등 얼굴에 이물질이 뒤섞여 모공을 막아 생기게 된다. 모공이 막히게 되면 모공 내부는 혐기성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환경은 트러블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따라서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씻는 것보다 꼼꼼한 세안으로 모공을 열어주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स्थ्य이 함유된 비누는 뛰어난 세정작용으로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지 조절을 돕는다. 또한, 피부 순환작용을 증대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꿔준다. 슷은 트러블 피부는 물론이고 아토피성 피부염, 노인성 건조 피부염, 만성습진 등에 좋다.

생활하는 곳곳에 슷을 놓아두면 감기 예방

감기는 코와 목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보통 자연스럽게 감기가 호전되는 기간은 약 7일인데 이 기간에는 오한이나 발열, 근육통이 생긴다. 감기 바이러스는 어느 환경이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고 수시로 몸에 침투한다.

생활하는 곳곳에 슷을 놓아두면 슷에서 발생하는 음이온 덕분에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본초강목'에 의하면 슷이 독성을 제거한다. 음이온은 체내에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긴장완화를 유발하여 공기 비타민으로 불린다. 오염으로 더럽혀진 도시생활 공간을 숲 속이나 폭포같이 음이온이 풍부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슷만큼 효과적인 존재도 없다.



स्थ्य이 섞인 물로 머리 감으면 비듬 사라져

두피에서 쌀겨 모양으로 표피 탈락이 발생하여 각질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을 비듬이라고 한다. 피지선의 과다 분비, 호르몬의 불균형, 두피 세포의 과다 증식 등이 비듬 발생에 관여하는데 최근에는 스트레스, 환경오염, 과도한 다이어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치료법으로는 머리를 하루에 한 번 감는 것이 좋으며, 그 중 항진균제 등이 포함된 약용 샴푸를 일주일에 2~3차례 사용한다. 또한, 머리를 감을 때 슷을 사용하는 것도 비듬 제거에 효과적이다. 보통 3kg 정도의 슷을 자루에 담아 물에 넣어 머리를 감으면 비듬도 사라지고 머릿결도 좋아진다. **MEDI^YCHECK**